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日本軍究竟目標는 極東의制覇樹立

中國에在한日本의動向에對한 米國上院議員의批評

【華盛頓二十六日發電通】二十六日 米國上院에서는 日本軍의最新動向에 關하야 有力한 諸議員으로부터 自由로운 批評이잇섯는데 그主要한것은 左와如하다

▲華盛頓州選出民主黨議員본氏 日本이 東亞에잇서 激發하는것은 人口處理에 窮하여잇기 때문이다 軍事的支配는 今後도 繼續하야 益益 中國에擴大되여 中國 自身이 組織을整備하고 即 自己의 國家를 自己가 統制하야 日本을 驅逐하게될때까지 繼續될것이다

▲유타州選出民主黨議員킹氏 日本은東細亞全部를 支配하기까지는 그活動을停止하지안흘것이다

▲오클라하마州選出民主黨議員토마스氏 此種行動은 結局 戰爭에到達하고 그戰爭으로 一國이世界第一의 覇權을掌握하는結果가되다 勿論그것은 먼將來의 일이나 그러나 結局은 그러케될憂慮가잇다

廣田首相參內

【東京電話同盟】廣田首相은 二十七日午前十一時三十分 參內하야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同日 勅令을 받드러 閉院式의 勅語를 奉讀하고 即時式을 終了하엿다는데 特別議會의 經過及 結果의 審議에對하야 奏上하고 여러가지로 御下問에 奉答한後 御前을 退下하엿다

社說 中歐의噴火口 墺太利

一

去十三日 墺太利의 首相쉬쉬닉博士가 內閣改造를 斷行하야 墺太利파시스트의·統帥라고도할 하임베르(護國團)의 首領슈타렘베르크公을 副總理의 地位로부터 떠나 閣外로나가게하고 쉬쉬닉首相自身이 內相, 外相을 兼하는同時에 護國團을 解散식히려는 方針을 取한以來 墺太利의 國內情勢에는 急激한 不安의 兆候가 增長되엿다. 더욱이 去二十二日, 나치스의一團이 슈타렘베르크公의 邸宅을 襲擊한事件이 잇슨以後에 墺太利의 國內情勢는, 또다시 獨墺合倂問題와, 對伊關係와 아울러 國際問題로써 一九三四年二月의 社會民主黨의 革命, 同年七月돌푸스暗殺事件을 中心으로한 墺國나치스의暴動事件當時와가티 世界人의 緊張한注目을 集中케하고잇다

二

墺太利의國際問題로서의 重要性은 그地理的人種的事情에依하야倍加되다. 나치스獨逸의 墺太利合倂熱은 나치스黨의 綱領에 提示한바와가치 게르만民族統一에依한 노-듸國家建設이 第一次的인 重要課題가되고잇는터로 獨逸은 地理的으로隣接되고 歷史的으로 同一한 版圖內에 屬하엿섯스며 人種的으로 純粹의 獨逸人인 墺太利의 六百五十萬의 人口와 三萬二千餘平方哩를 倂合함으로써 大獨逸의 옛光榮과 權勢를 더하야 歐洲最大의國家로써 君臨할것을 絶對的인國策으로하고잇는것이다 이러함에도不拘하고 墺國內에잇는 나치스를 援助하는以外에는 直接으로 合倂工作을 開始치못한것은 墺國의 歷代의 反나치스的政權이 나치스 獨逸의 合倂工作을 阻止할수잇슴만큼强하기때문이아니엿다 베르사이유條約, 산제르만條約에依한 獨墺合倂禁止가잇기때문도아니엿다 墺太利를獨逸이西北쪽으로 隣接한것과 가치 南쪽으로부터 抱擁하고잇는 伊太利가 積極的으로 돌푸스以來歷代內閣과 親密關係를지어, 獨逸勢力의 南下를 防止하기에汲汲하엿기때문이다. 伊國의 墺國接近이 그對墺政策의 結果임은 말할것도업다

三

이러한 對外關係를 中心으로하야 墺國의 國內諸勢力은 分裂, 合作의 過程을 反復한다 카토릭社會黨의 勢力과 地主와資本家의 後援下에서 再昨年七月 나치스에게 被殺될때까지 親伊佛反獨政權으로써 繼續되든 돌푸스政權은 維也納을 根據로한社會民主黨의 勢力을 鎭壓하는데잇서서는 슈타렘베르크公의 反社會主義國粹武裝團體인 하임베르의 援助를바덧다 社民黨의 革命失敗以後 하임베르의 影響이 커지게되자 同團의슈타렘베르크公과 파이氏는 쉬쉬닉首相下의 副總理와內相의地位로써 政權의中心에 드러서게되엿다 슈타렘베르크公의파시슴은 勿論伊太利派이기때문에 反나치스的이다 쉬쉬닉首相은 民主主義復興에 對한 [illegible] 時에 若干親獨的傾向이잇다 나-

伊國의頭痛거리인 駐아디스아베바英國公使館

米大建艦에對應 新造艦計畫確立

一九三七年의無條約狀態에備할 海相의積極的意圖

【東京電話同盟】海軍에서는 第六十九議會閉會와함께 今後 廣田內閣의 庶政一新과 呼應하야 特設한 海軍制度調査會의 機能을 最大限度까지 發揮하야 本格的調査審議를 遂하고 또一九三七年度의 無條約狀態에 對應할 日本의 軍備保有計劃을 速히 確立하고 그豫算化를圖하야 明年度豫算編成에 備하려하고잇다 明年度豫算은 永野海相이特別議會에서 聲明한바와如히 平時에잇서서 未曾有의 尨大한 海軍豫算의 實行에 着手한 米國의 造艦에 對應하기爲하야 今後는 新造艦計畫確立, 水陸整備, 發航空機擴充等, 西太平洋海上의 國防實力의 保有를 目標로 鋭意準備하지안흐면 안될것임으로 總額六億圓 突破는 不可避하다 그리고 永野海相은 庶政一新에關하야 實際한 熱意를 가지고 特히 國防第一主義에 基하야 新財政計畫의 急速樹立을 熱望하고잇슴으로, 政府는 特別議會에서 公約한 財政, 行政, 稅制其他機構의 改革具體化에 對하야 [illegible]政府를 維持하야 國體마다 海軍內의 意向을 綜合하야 廣田首相에게 具體的 主要進言을 行하게될것이다 海軍으로서는 廣田內閣이 來通常議會에 全國民에게公約한 庶政一新의具體的政策이 提案되여 實行되기를期待하고잇다

파레마라政府 聯盟正式脫退通告

【쥬네브廿六日發同盟】파레마라政府는 二十日 聯盟事務總長에 對하야 國際聯盟을 脫退한다는 旨를 正式通告하엿다 通告要旨는左와如하다

파레마라政府는 規約第一條第三條에 基하야 國際聯盟을脫退함 但依然 聯盟을支持하야 今後도 聯盟의原則에基하야 行動할 것이다

議會끗난 廣田首相 庶政一新策樹立

建議, 附帶決意, 質問에나타난革新機運따러 時局對應方針을準備

【東京電話同盟】第六十九特別議會는 二十六日에 會期滿了하고 二十七日 閉院式도 無事히 終了하게되여 玆에政局은 一旦安定되게 되엿다 政府는 特別議會의 協贊을 어든 豫算及 法律案을 實施하야 非常時局打開를圖하는同時에 廣田內閣成立當初에 聲明한 庶政一新에對하야는 特別議會中 貴衆兩院에서可決된 建議 決議 附帶決議 質問에나타난 革新氣運에徵하야 調査局及 各省을督勵하야 庶政一新에關한 具體案을 樹立케하고 經費의 伴하는것은 來通常議會에 提案하야 實現을 圖하는 同時에 豫算을 伴하지안는것은 될수잇는대로 實施할 方針인데 對中 對蘇等 外交問題를 [illegible]하야 內閣에잇서서는 行政機構改革 稅制의 根本的改善等 時局對應方策을 樹立하기로되엿다 [illegible] 엇기때문에 廣田內閣의 庶政一新政策에關해서는 아모것도 具現할수업섯스나 議會開期中의 論戰의重點은 事前 今後具現하려는 革新政策에 簇生되는데 이에對하야 廣田首相을 爲始하야各閣僚로부터 各其關係事項에 關하야 實現에對하야 公約한바가 잇섯다 그重要項目은如左하다

一, 內閣關係行政機構의 改革과 內閣調査局의 再檢討及 그擴能의 擴大强化
一, 議會政治再檢討를爲한 貴族院改革問題及 議院制度의改革
一, 內務關係, 今次總選擧의所謂人權蹂躪問題의 善後措置로 選擧法의 改正 地方行政制度와 地方財政制度改革
一, 陸海軍關係, 肅軍의徹底, 國防의充實
一, 司法關係, 司法制度의更新, 人權蹂躪問題의 革正
一, 農林關係, 小作法의制定 農村負債整理問題의 解決
一, 商工關係, 製鐵國策의再檢, 重要産業의統制問題, 中小商工業에 對한 金融方法의 統制
一, 遞信關係, 電力國營方策의樹立
一, 拓務關係, 拓務行政의刷新, 對滿移民方策의 樹立擴充, 南進政策의 確立
一, 外務關係, 自由積極外交의 確立 外務人事의 刷新 對蘇外交 特히 蘇滿國境問題의解決
一, 文部關係 文政改革 敎育의 根本方針의 再檢討
一, 大藏關係 財政制度의改革 特히 增稅問題 中央地方財政의 整備 國家財政計畫의確立

革新政策 重要項目

【東京電話同盟】今期議會는 現內閣組閣後 短時日間에 召集되

監察法案通過로 保護監察所設置

來十一月一日부터實施할터

【東京電話同盟】司法省에서는 今回의特別議會에提出한 思想犯保護監察法案이 無事通過하야 來十一月一日부터 實施하게되엇다 따라 司法省에서는 森山保護課長이 當下를 統轄하야 長崎, 大阪, 廣島, 名古屋, 東京, 仙臺, 札幌等에 保護監察所를 設하고 補導官八名高等官을 專任케하고 全國十五個所에 出張所를 設하야 思想犯人을 保護司數百名을 配置하고 思想犯의 敎化善導를 徹底히하야 共産主義思想의 撲滅을 圖하고 一次轉向된 者도 完全

NRA의敗退로 全米에罷業激增

大審院의産業復興法破壞 勞働者、罷業으로對抗

【華盛頓二十六日發同盟】産業復興法의 違憲判決以來 每事에루스벨트政府의 産業統制政策이敗退를 不得已하게되는 事實은마침내 勞働組合全體의 不平不滿을惹起하야 最近에잇서 各地의 罷業은 激增하는 形勢를示現하고잇다 農工業의兩部門에 亘한 罷業勞働者數는 이미五萬人에達하여잇다고 傳하는데 組合側은 大審院이 産業統制立法을 違反이라고 判決하려는 態度를取하는 以上, 勞働者側은 罷業에訴하야 그當然한 權利를 行使할것은 不得已한結果라하야今後 더욱 積極化하리라고 觀測되는데 이問題에 關하야 米國勞働組合總同盟會長 그린氏는 二十六日 左와如히 聲明하엿다

罷業氣運은 逐日激化하고잇다 大審院이 判決으로써 産業復興法과 갓튼法이 確立한 大原則을 破壞하는 以上 이것은 當然하다 勞働者들은 이러한 大審院의 態度에 鑑하야그經濟的實力에 訴하야 妥當한賃銀과 勞働時間을 獲得할수박게업다고 聲明하엿다 [illegible] 바야흐로 全國各地를 通하야 [illegible]

今議會에通過된 新法案內容解說

政府가 今議會에 提出한法律案은 全部四十六件에達한다 會期二週間인 特別議會에 通常議會에 匹敵하는 多數의 法律案을 提出한 政府도 자못大膽하나 何如間 겨우一件이 審議未了로 되엿슬뿐으로 他는 全部成立을 보게되야 成立된것은 [illegible] 好成績이라고 말하지안흘수 업다 더욱 二三의 法案과 赤字法案과를 除하고는 거의 全部가 岡田前內閣時代부터 懸案으로 되여왓슴으로 今回의 特別議會는 第六十七議會(前前議會)의 延長과가튼 것이라고보면 今回의 好成績은 當然한것인지도 모른다 以下各法案의 內容에 對하야 簡單한解說을 試하기로하자

▲農林省關係 農林省所管의 提出法案은 米穀關係三案 蠶絲關係三案及 蠶種法中改正法律案의 計七件으로 [illegible]

一、米穀自治管理法案

米穀三法案의 主體가 되는것은 이것으로 政府는 [illegible] 米穀統制法 [illegible] 財政上에 及하는影響等을 考慮하야 그對策을 放究할目的으로 特設한 米穀對策調査會의 答申에基하야 米穀自治管理法案 米穀統制法中 改正法律案及 正租共同貯藏助成法案의三案을 成立하야 이를第六十七議會에 提出하엿는것이다 그리고 米議院은 一部를 修正한後 此를 可決하엿는데 貴族院에잇서서 會期滿了로因하야 審議未了로 되엿는것이다 米穀自治管理法案의 眼目은 過剩米의統制이다 日本內地及 外地即 朝鮮, 臺灣을 通하야 一貫한米穀對策을 樹立할것을 主眼으로 米穀生産者로 하여금 [illegible]

[illegible] 統制米를 自治的으로 管理케하야 米穀統制의 目的을 達成하려하는것이다 그래서 政府는 每年米穀年度初에 米穀의需給推算을 行하야 그統制를 [illegible] 剩米가잇다고 認定할境遇에는 그 [illegible] 日本內地, 朝鮮, 臺灣에 配定하야 各其統制를 [illegible] 그境域內에서 一定한數量을 貯藏管理케하는것이다 [illegible]

二、米穀統制法中改正法律案

이法案은 米穀自治管理에 伴하는것으로, 改正, 要點은爲先 第一에米의 出廻期에 農家가 米의 急賣를 할으로 政府에 [illegible]

三、正租共同貯藏助成法案

正租의 共同貯藏助成에 對하야는 昭和五年及 昭和八年의 大豐作時此를 奬勵實行하야相當한 效果를 내엿슴으로 이法案은 正租의 共同貯藏의助成을 恒久的施設로써 行할것을 目的으로 한것으로 産業組合又는 農會等團體가 米의 出廻數量의 調節又는 正租를 貯藏할時 政府는 此等貯藏團體에 對하야 金利及 保管料에 相當한 政府所有米穀을 交附할수잇는길을 設하야 그奬勵助成을 하려고한것이다

橫須賀海軍記念日祝賀

【橫須賀電話同盟】第三十一回海軍記念日을 마지하는 橫須賀軍港에서는 二十七日 午前八時부터 祝賀會를 擧行하엿다 記念艦三笠에는 全艦에 裝飾을 施하고 軍艦鳥海艦上에서는 軍艦旗揭揚等의 儀式을 마이크를 通하야 全國及멀리 中國 滿洲 南洋等에 中繼放送하엿다 [illegible]

海軍記念祝賀會 朝鮮神宮서擧行

京城府內 海軍協會朝鮮支部 外十數團體에서主催한 第三十一回海軍記念祝賀式은 二十七日 午後四時半부터 朝鮮神宮前에서宇垣總督을비롯하야 官民約 七百五十名의 參列下에 嚴肅裡에 執行하엿다 式은먼저 神宮의修拔로始作하야 國歌合唱後 日本海海戰大捷에下賜하압신 勅語를奉讀한다음 東鄕司令長官의 奉答文을 朗讀하고 萬歲를三唱한後 式을閉하고 五時부터 同大廣間에서 祝賀會를開하고 參列者一同은 野戰式料理로 往時를 追懷하고 午後五時半 散會하엿다 그리고 同夜八時부터 府民館中講堂에서 『日本海海戰의 回顧와帝國海軍의 地位』라는 演題下에 鎭海要港部司令部參謀長 起村大佐의講演이잇슬터이다

한 國民으로 此會에 보내려하는것이다 現在司法檢察機關이 檢擧한 總數는 五萬九千百十三名으로 起訴猶豫六千五十六名 刑執行猶豫者二千百四十四名 刑執行後釋放者 九百二十九名에 達하고 目下入獄中에잇는者는 五百九名 그中非轉向者 百二十名 準轉向者百七名 轉向者 二百八十二名이라는 數字를 示하고잇다

時事漫畫

醫師가 만어도 틀이지요!

日本漁業監視船 蘇領寄港拒否

今後交涉에重大示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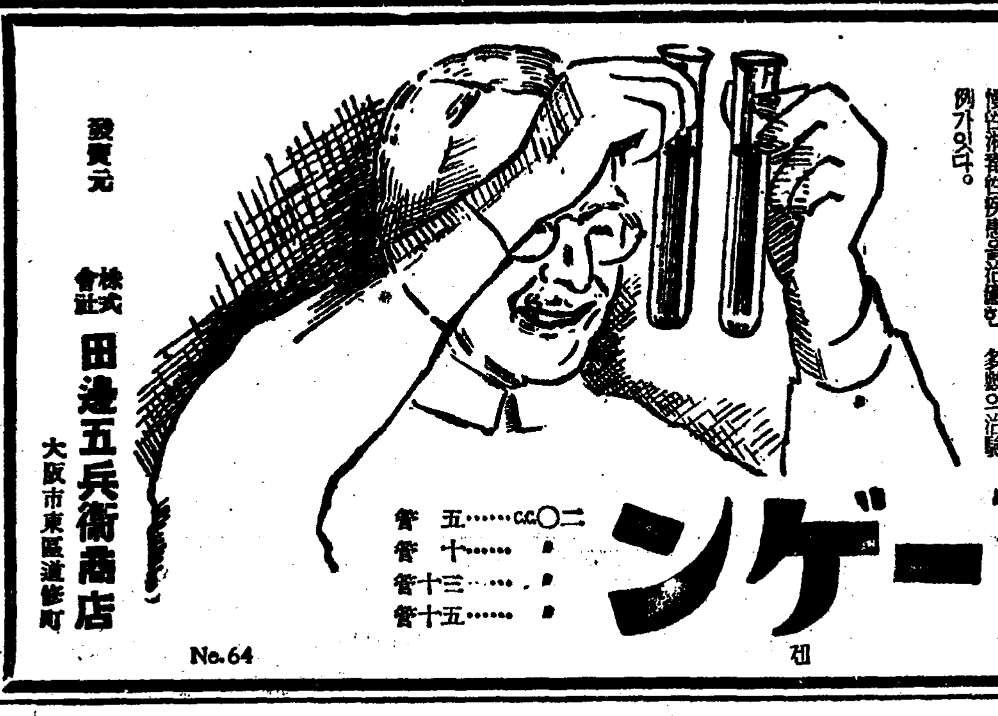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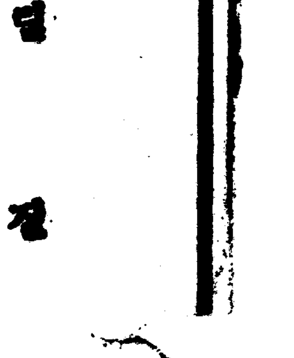
【東京電話電通】蘇聯政府는 日本의北洋監視船俊鶻丸及快鳳丸에 對하야 蘇領漁區寄港을拒否하야왓는데 新漁業條約締結이 成立되지못하고 暫定的으로 現行條約을 延期하게된 今日 이蘇聯側의 態度는 條約交涉의 今後에 對하야 重大한 暗示가되지 안는가 注目되여잇다 即昨年은 北키시카 우스카모 오제나냐等 數個所에 日本漁業監視船의 寄港을 許可하엿슴에도 不拘하고 今年은 突然此를拒否하여온것은 漁業條約交涉上에 어떠한有利한 局面을展開식히려는 意圖에서나 온것은 明白한事實이다 果然今後條約交涉이 順調로 進展될는지 자못疑問視되여잇다 따라日本으로서도 重大한決意로 行할 必要가잇슴으로 近近關係當局間에서 協議하야 蘇聯政府에 重大警告를 發하게될模樣이다

人事·集會

◆金永壽氏(佛蘭印度支那하노이東洋考古學硏究所員) 今般休暇로歸國케되어 二十七日午後七時車로 京城着到着
◆明德寧氏(英國領事) 英國人事次 二十七日來社、三十一日午後三時 京城驛發赴任豫定

夕刊後市況 廿七日

◆大阪 短期 新甫
新甫 七三七〇 (二〇錢)
一五一五〇 (不變)
日産 一三一八〇 (一〇錢)
◆橫濱 生系 後引◆
先限 七二〇〇 (不變)
◆福井 人絹 後引◆
先限 大五〇〇 (不變)
先限 五七四〇

淋疾

합정 합병증치료제

迅速히排膿을中止식히고 濁尿를淸澄히疼痛을鎭定함

本劑는淋疾의治療上가장合理的일수잇는 외구진엄, 特製(特許)의處理에依하야 發病等의 副作用을除去하고그效成分인化지렌을 寶效量의數倍를一回에쓸수잇게硏究하고 이에化學的治療劑인 카시올及우로사민等鎭痛、消炎、殺菌力잇는藥劑를配合하야 完成한것입니다따라서

急性淋疾에는 처음부터 慢性淋疾特히 治療困難한 攝護腺炎, 丸炎等에는特히 有效하야 治療界에 賞用되여잇습니다。
또婦人科領域에 잇서서 手術外에治療法이업다는 喇叭管炎, 子宮內膜炎에도 奏效합니다。

本劑의 注射는 隔日로이를施行하야 慢性淋毒性疾患을治癒한 多數의治驗例가잇다。

注射 ネオカルゴーノーゲン 네오가루고노겐
五cc○二管 十管 十三管 十五管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No.64

浪花館
漫畵夜 チンドン屋の娘 極彩色漫畵 お伽行進曲 初姿出世街道
五月二十七日ヨリ六月二日マデ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漫畵夜 三·〇〇 五·一〇 七·〇〇
▲チンドン屋の娘トーキー
總月田一郞歌川絹枝
▲お伽行進曲 極彩色漫畵
▲初姿出世街道 松竹京都トーキー 市川右太衛門、岡田嘉子
◇次週四日より「浪に告ぐ」

桃花劇場
五月二十六日부터三日間 料金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土曜日曜祭日晝夜 七時부터 四回公開
大巨篇 空前絶後의 G-멘
監督……니월 크리 主演……캐그니 世界最高記錄을樹立
全米를熱狂케한 G-멘 [illegible]
時代劇 極東映畵社超特作 若殿藤栗毛
東大門桃花町 電話二一五番

"電區"撤廢運動側面記 ②

人口의增加率만도 新編入區가上位

郊外發展이란觀點에서보드래도 京電이버틸理由가何處在

도시의 발전이교통긔관의 시설여하와 그리용의 대중적긔능발휘여하에 달려엿다는것은 다시말할것도 업시 오늘까지밟어온 경성의 과거발전경과와 금일그발전이교통긔관의 원활치못한관용때문에 부욕이 경제되엿다는것만으로도 충분히 알수가잇다 본래경성은 조선의 수도로 제반문물의 중심지이엇다는것이 도시의 형성을보게된 근본이라하지만은 근대도시로서 발전하며 사방에서모여드는 인구를 포용하야 대경성으로서 도시적 경제단위의 팽창을보게된 원인중의 크다란것의 하나는 시내에서 교외로 뻗어지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이에병행된 문제의 교외선전차선로가 큰도움이되엿든것이 사실일것이다 그동안 오늘과가튼 구역권락의 임금조절도업시 문밧글나서려면 또 밧도밧 두구역의임금을 내이든 불편과 부당의과중을 무릅쓰고라도 시내에서 넘치는인구는 교외로 빠저나가지 안흘수업섯다 그러타고 경성이발전하여온만큼 부민은 전차의신세를분외로 입엇다는것은 아니다 도시의발전에 따라 절대필요한긔관으로서 리용되여야할긔관을 가진경성전긔회사는 그만큼 리익을 보앗슬뿐이다

◇

그런데 문제는 전차가 도시의 발전상 가장유능한 교통긔관으로 하로라도 업지못할 자리에잇서서 그리용이잘되고못된다는것은 당장 부민의 직접리해관계가 막대하고 동시에 도시의 발전을 좌우하게되여 그영향은 부민에게 직접간접으로 영향하는바가 또한막대하다는점에잇다 그럼으로 어느교통긔관을 막론하고 공중의리용이 더하면 더할수록 아무리 개인이나 어떤영리회사의 소유라고해도 제마음대로 공중의리용을거절한다던가 또는 임금을 함부로 만히못밧도록 하는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전기가튼 교통긔관은 일국의 철도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발전과도시인의 리해에 절대관계를 가진만큼 어데까지던지 공중긔관으로서 무리가 잇서서는 안되는것이다、 그때문에 뒤에도 설명하겟지만 일본의 법률도 이를 엄중히규정하여 이러한전차의 공익적긔관을 감독、지도하게까지한것이다、즉오늘의 경성전차가 경성부민에게 업지못할만큼 공익긔관으로서 리용되고잇고、또압으로 더크게리용되여야 할것인이상 전차라는 교통긔관의 운용은 전경성부민의 의사와 그요구를 십이분존중히 안흘수업는것이다

◇

벌서 장황한 리론을 말할때는 지낫다、경성전긔회사가 경성을중심한 전등전력전차 까스사업을 경영하면서 일본전국의 어느전긔회사보다 낫게 일할내지일할이분의 고리배당(高利配當)을 하여온것만으로도 경성전긔회사가 과연 공익적 립장에서잇섯던가하는것은 물을것도 업고 당국으로서 전긔회사로하여금 공익사업긔관으로 감독지도의 임무를 얼마나 다하여 왓는가를 뭇고십흔 형편이어서 오늘의당면한 임금구역 폐지문제의 해결운동도 시긔가 늣저진·늣김조차잇는바이다 더구나 오늘의대경성발전의 현상에 비치워볼때 문제는 더욱절박한것이다 대경성의 도시적 발전이란것은 다시설명의 여지가 업지만은 최근의현상을 보면 종래의 구경성구역은 이미인구의 표화상태를 이루지오래다 경성부의 조사를보면 구구역내의 인구 사십삼만여명으로 주거(住居)로 가능한 면적칠백오십삼만여평(坪)에 배당한다면 한명에대한 겨우십칠평이라는 계산이니 여기에 도로이니 광장가튼것을 가산한다면 시민들은 얼마나 좁은면적내에서 살고잇는가를 알수가 잇스니 도시의위생과 보건상 무리한정도의 인구가 들어살고잇다는것을알수잇다。

◇

그반중으로 인구의 팽창은 어느곳으로 물리고잇는가를 알어보면 현재경성부의 신편입구역의인구는 이십삼만이천여명으로 구경성구역내가 매변의 인구증가률이 불과 삼분팔리(三分八厘)임에 대하야 신편입구역은 실로 구분사리(九分四厘)로 이수자에 의하면 시내의 인구가 신편입구역으로 나가는것도 사실이거니와 그 보다도 경성전체의 인구증가가 신편입구역으로 물리고 잇는것이 더 명료하다、이제 신편입구역내의 매면인구증가률을 지역적으로 보면 다음과갓다

舊龍江面一二分、舊延禧面七分五、舊恩平面一分七、舊崇仁面一三分二、舊漢芝面八分九、舊北面七分八 舊永登浦邑一四分七

◇

이와가튼 인구를 다시 알어보면 가장 인구가 늘어가는지역은 문제의 교외선전차연선인것을 알수잇다 이에도시의 발전과전차의관계는 더깁허가고 잇서서、전차의 리용이 더깁허져가고잇고 경하야 이러한 도시의 팽창에 의하야 행정구역까지확장하게된금일에 대중의 공익적교통의 긔관만이 발을 버치고 전시민의 의사와 리익을 배반하고 임금구역을 철폐치안흘리유가 어데잇슬까 (계속)

조반전

▲때마침론주의와의 이십일오후다섯시 부청영파출소에는 때아니어화가 일러들엇다 ▲조반전자무슨재료가 되지안흘가하고모힌공중을 헤치고 용감히들어가보니 이것참 흉흉한 조반전재료란말이지 ▲람루한 중국옷입은 녀자하나이 노한저 고려와 분출지머이는 세상에나 보이는 게집아이를안고 길을 걸어가것이 동변의원인 ▲파출소에서는 이것을 요사이 류행하는 유괴마(誘拐魔)인줄알고 엄중한 취조를 시작하니 그내용이 굉장하다 ▲이 녀자는 시내청엽정(靑葉町)에 서난 최오점(崔[illegible])이란 조선사람으로 열아홉살때 산사는 김인숙(金仁淑)이라사람과 결혼하엿다 겨우두달만에 파경(破鏡)의 비운을 당하고 ▲지금부터 십오년전에 지금 남편인 황금정(黃金町)사정목 백륙십륙번지에서 편키바르는 장사를 하는 왕원부(王元孚)란 중국사람과 결혼하여 [illegible] 어린애 [illegible] 장사를 하는 왕원부(王元孚)와 결혼하야 아(?)어데(?)、중국사람의 결혼은 아 제작년부터 나온것이어(?) 동변의 원인이된 데레(太?)(?)라는 게집애라고하니 조반 잘것고 생각하더라도 웃지안홀수업는일 ▲세상은 넓은곳 별일도 다만허……

本社講堂消息

五月二十九日 午後二時 朝鮮[illegible]研究會發會式을 擧行하는 同時에 宋秉甲 李寬伯 金[illegible] 丁[illegible] 四氏表彰式을 擧行한다고 한다

[illegible]留置場에

【[illegible]州】만주국 세관리앙모씨는 일요일을리용하야 처자녀와 부내 진사정(眞砂町)놀정 상점(金井商店)에 들어가 모자를 한개 훔처쓰고 나오다가 점원에 발각되여 신의주서로 끌리워가서 취조를밧는 중이라한다

지안유지아니라 학생들의 질문에 대하야 숙정가여자를 내인 화조당감리미교류(?)와 당번이 대단모호한데분개한 학생들은 이십칠일 정심시간을 리용하야 금번 사건의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급회를 열냐고 하엿스나 이것조차 허가를 하여주지안허 학생간의 공긔는 자못긴장되여잇서 금후사태가주목된다고한다

士兵團,列車顚覆 乘客十名慘殺(朝鮮人三名)

應戰中의兩大尉、兵一名은戰死 廿六日穆稜支線에서

【新京二十七日發同盟】=關東軍發表=북철제 십이호렬차가 이십륙일오후세시 목릉지선(穆稜支線)인 삼도하자역(三道河子驛)으로부터 북방 이십키로되는지점에도달하얏슬지음에 돌연토병단의 선로파괴공작으로 탈선되어 여지업시 전복이되엇다。 이변사가이러나자 선로양편으로부터 약백명의 토병이 몰려들어 렬차를 향하야 맹렬한사격을 개시하얏슴으로 동렬차의 경승병은(警乘兵)은 즉시이에응전하야 사십이분동안이나 교전을하얏는데 결국 토병단은 서방으로물러가고말엇는데 이전후에서 반재하지대(半截河支隊)소속 촌상(村上)포병대위와 우부(右部)보병대위와 병졸한명은 전사하고 조선인 승객삼명일본내지인일명 만주인 륙명합십명은 무참하게도 토병단의 포위습격에 희생을 당하고말엇다

參事官等 行方不明

木蘭縣에土兵團

【哈爾賓二十七日發同盟】목란현(木蘭縣) 우야참사관(雨夜參事官)과 지주촌경무지도관(警務指導官)은 집단부락건설정향과 도로검사를하기위하야 대사(警士)열명과 도로수선부약간명과가티 『三面』으로 이십륙일오후 일곱시경에 현성(縣城)으로부터 북방으로 오십지리(支里)되는지점에 도달하얏슬지음에 두목통명의 토병단약이백명에게습격을바더 이에곳 응전하얏는데 이교전중에 참사관지도관은 행방불명이되엇고 대하구경찰서장과도로수선부는 어찌되엇는지알수가업고 자동차 운전수는 전사하얏스며 자동차는 소각되엇다。이급보를접한 일만군은 각방면에서즉시 토벌차로 출동하야 토병단의 근거지몽우산(蒙雨山)을 포위공격중인데 상세는 알수업다。

蘇聯密偵 滿人四名逮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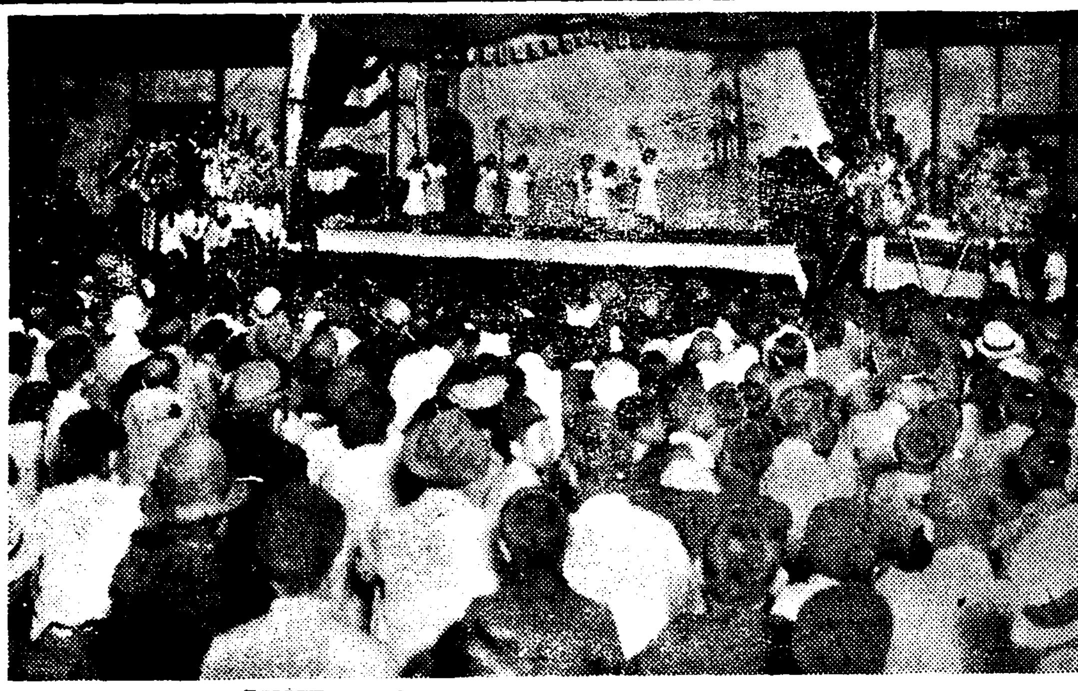
【哈爾賓二十七日發同盟】합리빈경찰청형사과가 지난구일 착배트로서아 밀정혐의로 장홍유(張鴻儒)신광요(辛光耀)임종운(任宗[illegible])부창(富昌)등 만주국인네명을 체포하야 엄중취조한결과 장홍유는 작년삼월까지 일면파(一面坡)우부창(北鎭)에 근무하엿섯는데 그후 어떤로서아 사람의 소개로 동부국경에 주둔중인차서 목단강(牡丹江)주재의 일만군의 내정을 조사하야 로서아측에 제공하야 두번이나 보수를밧고 금번삼월에 합리빈에잇는 일만군의 내정을조사하라는 명령을바든후 합리빈에 잠입하야 일만군특히 비행장의 모양등에관한 자세한조사를하야 도와함께 로서아측에 팔려든때마춤 붓잡힌것이다 그리고 장홍유는 합리빈으로 들어온옥스파이』단원을 엇기에 노력하야 전긔세명을 당원으로 어더가지고 밀정을하려든것이라한다

임자업는죽엄

서소문정(西小門町) 길거리에 임자업는시체한개—금이십칠일아침에 시내서소문정 십이번지 압헤 약삼십사오세가량 되여보이는 조선인남자의 시체를발견한행인들이 소관서대문경찰서에급보하엿는데 경찰의(警察醫)의검시한결과에 의하면 모르히네중독으로 사망한것이라하며 주소와성명은도모지 알수업다 한다

朝鮮人移民을 外蒙人이反對

【바룬·알산(白泉)二十七日發同盟】당지에잇는 조선이민(移民)은 흥안북성고류하(興安北省[illegible]流河)부근을 개간하고잇는데 이지방의 외몽인(外蒙人)들은 이것을극력반대를하고 오옹묘긔공서(五翁廟機公署)를거처 엇몽합의를 제출하엿슴으로 일만당국은 이분쟁해결에 힘쓰고잇스나 다소분규는 면할수업는듯하며 사태는 자못주목된다



釋尊誕降記念祭 廿七日壽松町 中央佛敎[illegible]院에서

少年豪遊客

【仁川】근일인천유곽에는 이십세미만의소년이 동료사오인을다리고 밤낫을가리지안코 호유하고잇슴으로 소관서원이 지난이십오일인치조사한결과 의외에사실이 판명되엿다 그는 영주군(榮州郡)단산면 단곡리(丹山面丹谷里)김정섭(金廷燮)(二)으로서 지난이십이일 금천여(金泉旅)전모여관에 한방에 묵고잇든 손님의회중에서 현금사백칠십여원을 절취하야 동료사오인을 다리고 호유중에 체포된것이라는대 그들은 그외에도 경성등중심으로 범행사실이 적지안타한다

西伯利亞의低氣壓 襲來로氣溫이低下

國富仁川觀測所長의 "怪氣候打診"

【仁川】겨울에는 삼십년래에처음보는 추위를가저온 병자년긔후는 그변태가 만심하야 신록이무르녹으려틈당하야 추위는틈너가지아니함으로 봄보리의태반이동사(凍死)한다는 소식이 나니리보도되엿다 이에충북부판옥소국부(國富)소장의말을듯건데 금년긔후는기상학상으로 드물게보는괴후로서 이번추위로말하면 서백리아(西伯利亞)의저기압이 조선을습래한관계라한다 이에전조선의기후를 참작하야보건대 함북(咸北)지방가튼곳은 백설을볼니며 때아닌 은세계를 일우고잇스며 기온은보다면어도내지칠도나 례년에비하야 내리다하며 제주(濟州)가튼곳은 십도나내렷다는데 오죽원산(元山)만이 평년의기온이라하며 전체로보아 농작물에 그피해가 적지안타하며 이기후도 이상일지나면 회복되리라한다

學生側은大不滿

下手者矢野만을退學시기고 聲援學生은不處分

시내 청량리정(淸凉里町)경성공립농업학교 오학년 화조(和組)학생도 시야직희(矢野直喜)(二)가 가튼반의 성태용(成泰鏞)(二)을 교실에서 남카로운칼로찔럿는 근래에드믄 불상사에대하야는 루보한바어니와 이제그후소식을들문한바에의하면 이번흉상사의 도화선이된 지난이십삼일밤의 싸홈에는 금번가해자 시야외에전구(田口)와 덕전(德田)의 두학생이 가담하여잇섯다하며 또이십륙일의 참변현장에는 길전모(吉田某)(二)라는 학생이 엽해서 보고잇다가 성원을한 사실이판명[illegible]

硬軟兩派의不良性 脫線學生等激增

保導聯盟員에發見된事實만도 嚬蹙할그들의行動

경기도에서는 학생들을 착하게 인도한다는 보도련맹(保導聯盟)이 잇서서 학생들의 일상행동을 감시하고잇슴에도 가리지안코 요지음 학생들의 풍긔가자미스럽지 못한 점이 만하서세상사람의 이마스살을 찌프리게 하고 잇다 그일례를들자면 토요일오후에나 혹은 일요일강(漢江)에서 사감모지를 씀하생들이 강가에서 소풍하고잇든 초면의 녀학생들을 가리「[illegible]」튼놀라지고 대낫(白晝)에 공공연히 유혹하는 일도 잇스며 모자도 쓰지안흔 중학생때밧에 공원에 산보하는 남녀동반자 또는 돌라다니는 녀자들을 까닭업시 조롱하며 혹은싸홈을 거는 일도잇고 이십륙일에는청량리정(淸凉里町)경성농업학교(京城農校)생도가 사소한 감정으로 동급생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사실도 잇다 이런 연파(軟派)와 경파(硬派)의 불량성을 띈학생들의 탈선의 행동은 여름철을 당하야 점점더 느러갈 우려가잇슴으로 일반은 학교당국자와 보호자들의 특별한 처치가 잇기를 바란다 한다

同德女高基礎完成— 十週年紀念式盛大

滿場을울린趙校長의回顧談 ◇……校主理事에겐紀念品贈呈

시내 창신정(昌信町)에 잇는동덕녀자고등보통학교(同德女子高普校)의 설립삼십사주년 긔념식과 아울러 긔초완성 십주년긔념식은 이십칠일오후 한시부터 그학교「그라운드」에서 천여명의 고등과、보통과 생도들과 밋백여명의 래빈참석아래 거행되엿다

오월도 저므러가는 첫여름— 이날 날세는 매우 조하서창공은 구름 한점업시 맑게개이고 훗훗한 바람은 넓으나넓은 교정을 둘러싸서 이섬대스러운 모힘을 축복 하는듯하엿다。

정각이 되자청아스러운 주악소리와함께먼저 교장 조동식(趙東植)씨로 부터 그학교가 창설되든 삼십변전 녯날로돌겨울고 파란중첩하든 경영고심담과 아울러 오늘과 가티 견실한 지반을 닥기까지의「동덕력사」낭독이 울려나올때에 장내 이구석저구석에서는 감격에 넘처 느끼여우는 졸업생과 생도들의 우름소리까지 들려나왓다

그다음 성관을 이한교를 위하여 놀이 빗을 보이게한 교주리석구(李錫九)씨와 및 리사 안홍(安弘)리경세(李慶世)씨등 비분에게 긔념품과 감사장의 증정이각각잇섯다。

이어서 래빈측으로 그학교후원회리사장인 권동진(權東鎭)씨의 축사를 비롯해서 직원、생도、및졸업생대표들의 축사가각각잇슨다음 다시 축사바든 제씨들의사사(謝辭)와답사가잇섯다 이리하여 식은순조롭게진행되여 교가(校歌)합창으로 오후두시반에 이르러이뜻기픈 긔념식은 성대스럽게 맛추엇다。 그리고 식이 끗난후에는 이어서 각가지 여흥과 수예품(手藝品)전람회가 잇섯다 (사진은 긔념식장과 교주리석구씨)

古蹟地帶 鑛業權行使— 取締에異議

殖産當局에서反對

고적보존령에의한 패총(貝塚)과 라의 고적지대의 광업권행사는 이를 엄중취체하기위하야 지난번 학무국에서 각도에 통첩을 띄웟섯는데 이에대하야 식산국에서는 광산당국의 유력한 이의가 이러나서 그귀취를 중요시하고잇다 이광산당국의 반대는 고적보존의 취지에는 매우협력찬성하나 이를보존령의 조문으로 적용함에는 이의가잇다는것이다 광업령중에는 명백히 신사(神社) 불각(佛閣)고적에대한 제한 규정이잇서 그범위는 고적보존령과가튼 광범한것이 안인데 광구의 취체에는 이런조문을 추가하야 광업령의 범위에서 행하는것이 지당하다고주장하고 잇는것으로 현실문제로서 광업권자에대한 취체를 하무관계로부터 한다는데 이의가잇다는것이다

運動競技

올림픽男女陸上陣 京城서競技會 來月九日來京

伯林올림픽大會에 出場하는 日本男女陸上選手 六十餘名은 來六月九日午後三時卅分 京城驛着列車로 途中下車하야 當日午後四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公開競技會를 開催하기로되엿스며 同午後六時부터 府民館에서 朝鮮體協主催의 歡迎會가잇슬터이라한다 그리고 朝鮮體協에서組織한 派遣選手後援會에서는 다옴、朝倉等의 [illegible] 二千圓에 할모양인데 이는 同後援會長이 [illegible]에게 傳達할터이라한다

一行中의 마라손選手 孫基禎 南昇龍外二選手는 六月三日 午後三時二十分 京城着列車로 途中下車하야 가벼운 練習을行하고 一泊後 四日午後三時三十分發 列車로 戰地 伯林으로 向할터이라한다

서울陸聯主催의 A마라손會 來三十日에擧行

서울陸聯主催의 第十四回A마라손會는 來三十日(土曜)午後三時부터 光化門四街里 廣場을 出發歸着點으로 漢江人道北端 約十哩코ー스」에서 擧行할터인데 參加者는 當日午後三時以內로年齡、所屬、氏名을 明記한後 參加金十錢을 添付하야 申請하야주기를 바란다고한다

伯林올림픽村에 四千七百名宿泊

伯林올림픽村에 宿泊하기로된各國選手는 五十六個國으로 合計 四千七百人에 達하는바 家屋數는 百六十二軒이며 一軒에는二十乃至 二十六까지의 選手室이잇다 役員과 選手를合하야 人數가 가장만흔나라는 米國의 五百二十 다음이 佛蘭西의 三百二十九 瑞西의 三百二十八、伊太利의 三百二十六、英國의 二百八十이요 그다음이 日本의 二百七十八 獨逸의 二百四十二名의 順이라한다

金銃8 釜鐵2

【釜山電話】釜山最初의 職業野球戰인 釜山鐵道對 金銃軍의試合은 二十七日 午後四時半부터 釜山公設球場에서 釜鐵先攻으로 開始한바 八Ａ對二로金銃軍이 快勝하엿다 閉戰六時二十分

(釜鐵 000000020―2)
(金銃 00043100Ａ―8)

◇投捕 釜鐵…朴、笹田、竹原 金銃…金子、廣田、堀內

今日의運動

◆庭球=京城實業庭球리ー그決勝 專賣對殖銀 午後四時半 朝銀코ー트

實業庭球第十五日 府廳이鐵道를이겨

京城實業庭球리ー그 第十五日의 鐵道對府廳戰은 廿七日午後四時五十分부터 朝銀코ー트에서열린바 第三라운드에드러가 府廳이 勝하엿다

【府廳】 【鐵道】

第一라운드
○(宋貞植 赤松) 4…2 (金鳳益 長瀨)×
×(崔[illegible] 朴[illegible]) 1…4 (千李根 秋山)○
○(金石集 金相光) 4…2 (朴[illegible] [illegible])×
○(張南星 申堅救) 4…3 (井上 古屋)×
×(河東植 李鳳基) 0…4 (渡邊 士連)○

第二라운드
○(宋貞植 赤松) 4…3 (千李根 秋山)×
×(金石集 金相光) 3…4 (渡邊 士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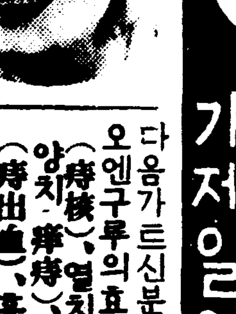
第三라운드
○(張南星 申堅救) 4…1 (渡邊 士連)×

實業庭球15日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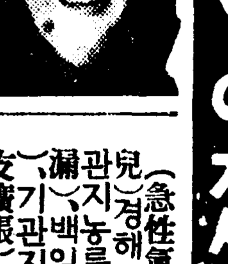
順位		專賣	殖銀	總府	遞信	鐵道	府廳	商銀	朝銀	比率
1	專賣	:	●	○	○	○	○	○	○	0.857
1	殖銀	○	:	●	○	○	○	○	○	0.857
2	總府	●	○	:	●	○	○	○	○	0.714
3	遞信	●	●	○	:	●	○	●	○	0.428
3	鐵道	●	●	●	○	:	●	○	○	0.428
4	府廳	●	●	●	●	○	:	●	○	0.286
3	商銀	●	●	●	○	●	○	:	○	0.428
5	朝銀	●	●	●	●	●	●	●	:	0.000

殖銀과專賣의決戰 今日!朝銀코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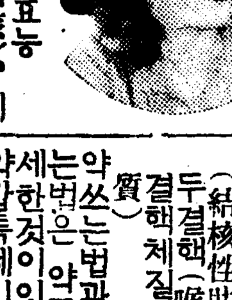
京城實業庭球리ー그의掉尾를 裝飾할殖銀과 專賣局의 首位爭奪戰은 今二十八日 午後四時半부터 朝鮮銀行코ー트에서 行하기로되엿다 兩軍보다 七戰六勝一敗의同率로서 殖銀은總督府에게 一敗를當하엿고 專賣局은 殖銀에게敗하야 制覇의機會를換하엿스니 專賣局은雪辱戰이자 優勝을左右하는 最後의一戰이라 鬪將 黃基成組와 白偶輔、李正玉組를 主力部隊로 奮鬪할것이며 殖銀은逐勳者 崔永生、朴龍普組를 비롯하야 洪承武、李鍾[illegible]組의勇[illegible]으로 連霸의意氣는 자못놉다



다음가트신분은쓰시오 엔구루의효능치핵(痔核)、열치(裂痔)、양치(痒痔)、치출혈(痔出血)、홍문이헤여지고헌데(肛門糜爛)、탈홍(脫肛)치루(痔瘻)、변비(便秘)
약갑이원·일원
약은 오레되는데 경성서는이원씩 주문하시오 대문시리를 쓰시오 당일로발송하야 드립니다 지방송료 선금십오전 대인금환이면십오전이오



약은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당일로발송함니다 약갑은 삼원 이원 일원 고대금인환이면십오전이오 자세한설명서는약포속에잇습니다



약쓰는법과 조섭하는법은 약포속에 자세한것이잇습니다 약갑 특제이십원 초기용오원 잘못하면낫지도 아니 십원짜리를 쓰십시오 약은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당일로 비밀히 발송함니다 지방송료선금이면십오전

무병이 장자오 신외무물이라더니 [illegible] 체증이 약하야 속병이 위장이 약하야 소화불량이나 헛배가 부르니 냉배를 알는이 고생하시는분은 신성당「게오ー」를 쓰시오 오래된병에는 삼원짜리한제를 쓰시오
약갑 삼원 일원
지방송료 선금이면 십오전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 株式會社
京城府西大門通[illegible] 代表電話光化門[illegible]番

령신환愛用家慰安 仁川서漫談大會

조선예약주식회사(朝鮮藥業株式會社) 인천지점(仁川支店)에서는 동지점개업일주년을 긔념하고 동시에 령신환애용가를 위안하는 의미에서 만담가 신불출(申不出)씨를 초청하야 이십팔일부터 동이삼일까지 량일간 매일오후칠시삼십분에 만담대회를 인천공회당에서 개최한다는데 조선예약주식회사의 령신환신전지 려상표마시면 입장은 무료로된다고한다

山野의"깽"姬象虫! 京南一帶에서猖獗

닥치는대로함부로草木을갈거먹어 果樹園經營者等에大恐慌

【京南】 태양한호통에 마음대로 발업(發業)될 이때에 경남일대(京南一帶)에는 희상충(姬象虫)이란 고약한 해충(害虫)이 준동하야 탈청(脫靑)되는 피해가 적지안타 한다 이희상충(姬象虫)은 본래 몰가충(沒강虫)이라기도하고 또한 모래버레(沙虫)이라기도하는것인데 이는 풀이거나 나무거나 그저닥치는대로 갈거먹는 즉산야의『깽』으로서 도한 사람에게도 피부를 마비식히는 유독물이라한다 방금 이독물이 맹렬히 준동하고잇는곳은 한강연안일대라는데 더욱이 잠실리(蠶室里)부근의 상전(桑田)과리래원정(梨泰院町)부근의 과수원까지 한남정(漢南町)부근에 침입하야 피해를 주고 잇서서 일반원예가(園藝家)들의 가슴을 조리게하고잇다 한다。

水原↓仁川間鐵道 實現도不遠한將來일

◇…三區中一區工事는落札

벌서부터 계획중에잇는 수원―인천(水原―仁川)사이의 철도부설에대하여는 지난 이십오일세구역에 난호아 입찰을 개시햇섯는데 제일、제이 두공구(工區)는 입찰가격이 모다 가렴든관계로 오는 삼십일에 다시입찰을 하기로 되엿스나 제삼공구 역만은 구만 팔천팔백원에 中村)청부업자에게 락찰되엿다。이로서 인천부민과 수원군민들이 오래동안 소망아 고대하든 수인선(水仁線)은 멀지안허 개통을 보게될것이라한다。

速達郵便區域擴張

경성부와 부산부의 관리구역이 확장되엿슴으로 체신국에서는 이가를 새로운 경세를따라 속달우편의 천되지역을 확장하엿다 그리하야 이번에는 그리용육일반에게 선전하기위하야 인쇄물을 조정하야 경성 부산 평양 등각지방에 배포하기로 되엿다

파리退治

【[illegible]】 시내동대문경찰서(東大門署)에서는 갑작이더워지는날시에 따라잣차 번식하여지는파리(蠅)를 근절할계획으로 관하십사파출소와 주재소에 추첨권이백오십매씩을 배부하야지난이십륙일부터 서낭통(蠅子箱)한갑에 한장씩주첨케하야 당선자에게는 일등에 패종시계를필두로 륙등까지 시상할터이라하며 일반은 이런기회에 파리전멸(蠅全滅)에 노력해주기를 바라다고한다

法官까지속힌 巧妙한詐欺漢 仁川署에다시被捉

【仁川】 인천지방법원이심의법정에서서 굴한 판결까지 내려게한 교묘한 사기한=인천송림리(松林里)사는 토지브로커정모(鄭某)(?)는 부근 김모(金某)(?)와합께 경성동대문밖에잇는 경성모 부호의토지 시가오천원가량의것을 사기로계약한뒤에 계약금삼백원을주고 이주일이내에 대금전부를 지불하고 명의이전을하야 밧기로하엿스나 그들은 토지를 매입하라는이보다 계약권을 가지고 다른 곳에전매(轉賣)하야 중간리익을 엇고저 피하엿스나 마츰내 사고저 하든이가 업서서 계약금 삼백원만 긔한이 넘어 빼앗기게 되것을 전기 정모는 도리혀 기한전에 대금전부를 가지고 지주를심방하얏스나 맛나지못하야 지불치못하얏스니 이는지주의 불찰이라하야 거익급사배원과 위약금 삼백원하야배원의 배상청구를경성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얏다 이에동법정에서는 사실심리에들어가 전기정모게토지대금오천원의 휴치를 심문하얏든바 그는 인천율목리(仁川栗木里)부호 유근필(劉根弼)씨에게 오천원을 차용하야 지불하라고 하얏다함으로 딴자는 증인으로 유씨를 소환 하얏다 근거업는 사실에 소환장을 바든 유씨는 전기정씨를 보고 실심함에 그는 유씨를보고 법정에서오천원을 차용하야 주엇다고만 답변을 하야달라고 애걸하얏스나 유씨가 불응함으로 그는마츰내 서산(瑞山)류모(柳某)(?)를 전기유씨로 가장하야 일심과이심에 출정케하야 (승소)를하게 되엿든바 소한지주는 억울함을 참지못하야 고등법원에 상고케 되엿다 이리자 의외에 유군평이라고자칭한 증인의 조서에 성(姓)이 유(劉)가아니고 류(柳)라고 쓰여잇슴을 발견하게되야 맛춤내 변호사측으로부터 정말 유씨를 발문케되야 맛춤내 사건은 급전직하로 밧귀여 일심에 승소한원고가 도리혀 패소하게되엿슬 원피고간에 화해로써 무사해결케되엿스나 이사실을 탐문한 인천경찰서 사법계에서는 관계자수명을 인치한뒤 수개월동안 엄중취조중인데 취조에따라 각층의 인물이 등장케되리라하야 자못 주목꺼리가 되여잇다한다

注文마튼洗濯物을 入質豪遊코被捉 仁川署는洋服店으로突變

【仁川】 주문마튼세탁물을 입질흥유한사기한―부내 신화수리(新花水里)이백십번지 김창건(金昌鍵)(?)은 얼마전에 부내율목리(栗木里)어구에서 세탁업을 하고 잇든것을 기회로 근일에는 전기영업을 중지 하엿슴에도 불구하고 가령수증을 발행하야 시내 삼영조(三榮組)지배인의양복을위시하야 은행회사상점등을다니며 주문을바러 이것을입질한후 신분에맛지안는유흥을하고잇슴으로 소관서원이지난이십사일 인치취조한결과 전기와가튼 사실이 발견되엿다는데 피해건수가백여건에달하야 형사실에때아닌 양복새울벌이듯하얏다한다

永登浦에서最初로 市民慰安野談會盛況

鼎言、灘雲과하모니카團도出演 本社支局의主催로

【永登浦】 본사영등포지국주최의 시민위안야담회는 예정과가티 이십륙일 오후팔시부터 영등포면 예관에서 개최되엿섯는데 원래 영등포에서는 처음잇는 모임일뿐아니라 출연한연사 신정언(申鼎言)김탄운(金灘雲)량씨가 모다 사게에 권위자이며 조선유일의 알파하ー모니가 뻰드단원이십여명의 특별출연도 잇는터이라인긔는 자못놉하서 정각전부터모여드는 청중으로 장내는터질듯 문자그대로 립추의여지도업시아래웃층이 모다초만원의 성황을일우워 온신조차 자유롭게할수가 업게되엿섯다 정각이되자 본보영등포지국장남정채(南廷彩)씨로부터 정중한개회사가잇슨후 순서에따라 알파하ー모니가뻰드의 한곡가사오종잇섯는대 곡목을밧출때마다 익숙한 가수들의 하ー모니가구멍을통하야고요한밤공기를 여지업시진동식히는 신비적음률로 청중은무아몽중으로 도취되엿섯고 이어서 『美姬의悱惻』이란제목으로 김탄운(金灘雲)씨와『떳다보아라』라는 제목으로 신정언(申鼎言)씨가차례로단상하야 각각잇는바 긔능을다하야 열정적웅변을 토하게되자 여긔서청중은 미칠듯긴장하야 몬지떠러지는소리까지 들을수업시 조용하엿다가도 천천에 벼역가티 갑자기 연예관이떠나가는것처럼 박수갈채로 아우성소리가 일어나서 울든아기네도 우슬듯싶도록 장래는극도로 도취되여 다만하로저녁의 짜른시간이나마 만흔소득을엇고 동열하시반경에 무사폐회하엿다한다 (사진은 하모니가연주 압에는 신정언씨의야담)

軌道車에事故

【京城】 경성궤도회사경성인 기동차 제십오호차를 운전수라연태(羅延泰)의 운전으로 동대문발(東大門發)광장(廣壯)으로 향하야 달리든바 불두역(佛頭驛)을 지나 다리를건너서서 시내하왕십정(下往十町)에 사는 정여권(鄭汝權)(?)이 차길을건너가다가 기동차에 충돌되여 시내부립병원에서 응급수당을바든결과 생명에는 관계가 업다하며 피해자정여권은귀먹어리인관계로 경적소리를 못듯고봉변하든 관계라한다

電車가傷人

【京城】 이십칠일 오후한시삼십오분경 부내강귀정(岡崎町)칠십삼번지 목전상회(牧田商會)압 길거리에서는 한강교를떠나 동대문으로 드러가는 전차일백륙십오호를 운전수 임백오십이호가 운전을하고 달려갈즈음 때마츰경성부에서 도로포장공사(道路鋪裝工事)를 하는데 인부한명을측면으로 드러바려 두개골을분쇄식혀 현장에졸도식혓다 피해자는 즉시 부근도전(稻田)병원으로 떠메다가 응급수당을 식히는중이라는데 생명이 위독하다한다

團體動靜 (二十七日)

▲晉州第二普校六十六名入京
▲鐵路學校十五名大阪行
▲培花女子高普校百廿名金剛山行
▲培材高普校百十名仁川行
▲培材高普校百六十名水原行
▲彦州普通學校八十三名仁川行
▲新義普通校七十名入京
▲하와이日本觀光團四名入京
▲瑞雲普通學校三十七名開城行
▲西串普通校七十二名仁川行
▲吉祥普通校六十名仁川行
▲安岳普通校百二十五名入京
▲全州第二普校九十名退里行
▲江西普通校四十名平壤行
▲高山文星 普通學校生徒三十三名入京
▲開城好壽敦女子普通學校生徒百七名京城通過大邱에
▲土城灶谷普通學校生徒四十名退京
▲通船普通學校生徒八十名平壤에
▲龍塘浦行勞働者百名京城驛通過
▲羅津行同上三十二名京城驛通過

禪學院說敎會

시내안국정 사십번지에잇는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 현재의 선학원(禪學院)교회부주최로 이십팔일(음력사월초팔일)에 다음과가티 설교와법회가잇다한다

午後二時 說敎 李允然和尙
同 三時 釋迦記念式에對하야 金寂音和尙
同七時半 釋迦에對한法話 韓龍雲先生

高麗青磁器 江華郡에서發見

約九百年된貴重研究資料

【江華】 강화군부내면 관청리(江華郡府內面官廳里)에 잇는 강화산업조합에서는 공장을 신축코자 이천여평의 긔지를 매립작업을 개시하얏든바 도중 땅속으로부터 고려청자긔(高麗青磁器)를 발견하얏는바 이를 모르는 인부들이 함부로 처금하야 다소의 파상을 입힌것을 강화 한일학교에서 참고자료로 이를 가저갓든바 이사실을 강화경찰서에서 탐지함과 동시에 이방면의 기술자 우전(宇田)씨를 초청하야 감정한결과 이가티 훌륭한 청자긔는 일즉이 경주나 개성등지에서도 보지못한것으로 년대는 약구백년전것으로 운룡상안(雲龍象眼)의 모양인바 노피는일척칠촌이란 치금까지 그례를 보지못한거름이라한다 (사진은청자기)

水原支局後援下에 滿洲視察團募集

—六月二十一日出發—

【水原】 신흥만주(新興滿洲)는동양의요지(東洋的要地)이며 동옥이 우리조선과는 장왕부터 만흔 인연을가젓던곳이고 또현재와 장래까지라도 여러가지로 관련을 가지고나갈곳이다 이만주는 일청(日淸) 일로(日露) 만주사변(滿洲事變)등의 삼대역(三大役)을 격근후 오날에 와서는 전세계가 주시할만큼 약진하며 세계인심을 끄는도시이다 여가르침사과 또는고국을등지고생명선을 수비(守備)하며 류리이민(流離移民)으로가서나라와 자긔를위하야 살고자하는그건설적한경을 시찰코자 정부선수원여주최와 본보수원지국후원으로 시찰단원을 모집하야 오는륙월이십일일로부터 칠월사일까지 십삼일간의 긔간으로 세밀히시찰할터이라는바 그려비는 구십원이며 시찰지는 별긔사고(別記社告)와 갓다하는데 일반은 이긔회를 일치말고 만히참가하기를 바란다고한다

當る廿七日晝夜二回興行(午前十一時四十分ヨリ)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超特作 松竹興行現代劇歌舞伎座合同作品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 原作 中内蝶二 脚色 森田信義 撮影 青島順一郎 劇化 落合浪雄 監督 野淵昶
オールトーキー 大尉の娘 水谷八重子、井上正夫 主演 清水將夫、御影公子、三井秀男、中葉子外藝術座一黨大合同出演
大きな人生悲劇 コロムビア社超特作日本版 原作・監督 ラムバートヒヤリー氏
探偵映畵の巨篇 弓矢莊の慘劇 ロバートアーレン フロレンスライス 主演
新興キネマ京都撮影所特作 原作 三田一 監督 藤田潤一 浪人嘯子 大谷日出夫、鈴木澄子、毛利峰子
永樂町 電(本)二三番 中央館

五月二八日낮부터!
샤ー만에스구랩프로提供日本版 하리ー래뷔ー氏監督作品!
五百年後의地獄 구로대아·덤엘·게인히드·지몬드氏 主演
怪奇無雙! 人間의疑惑과往日의焦點인五百年後의地球! 轉變無常하는人類와가리果然未來의地球는어떠케될것인가? 五百年後의地球를巨匠의名腕으로만드는一大明鑑이다
京城撮影所超特作映畫! 文藝峰、廣穀信 主演 朝鮮名畫 아리랑고개 全發聲 永遠不朽의如怨如訴한鄕土民謠의鑑賞化! 再鑑賞할이時期를일치마시라
大都映畫社特作映畫! 이罪에울어라 現代劇 野村京一 月宮乙女 主演
黃金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辯護士試補修習及考試規則全文

朝鮮辯護士試補修習規則은 五月二十七日附 總督府令 第三十七號로 朝鮮辯護士試補考試規則은 同日附 總督府令 第三十八號로 公布되엇는데 그全文은 如左하다。

▲朝鮮辯護士試補實務修習規則

第一條 辯護士試補의 修習은 辯護士가되랴는者에 必要한 品性의 涵養及實務의 修得으로서 目的으로함

第二條 辯護士試補의 修習은 京城地方法院管內의 辯護士會에 이를 囑託함

第三條 辯護士試補가되려는者는 前條의 辯護士會에 修習의 申込을 할것

第四條 辯護士會는 其所屬辯護士中에서 辯護士試補의 修習을 指導할 辯護士를 指定할것 辯護士會는 새로 其所屬辯護士中에서 辯護士試補의 修習을 指導할 委員을 指定함을 得함

第五條 辯護士試補가 되려는者는 修習의 指導를 受하려는 辯護士와 連署한後에 其辯護士所屬의 辯護士會에 修習의 申込을 함을得함 辯護士會는 前項의 辯護士를 其辯護士試補의 修習을 指導하는 辯護士로 指定할것 但特別한 事情이잇는境遇는 此限에不在함

第六條 辯護士會는 辯護士試補의 修習申込을 受한때에는 修習의 指導를 할 辯護士 또는 指導委員을 指定하고 又는 其指定을 取消한때는 遲滯업시 朝鮮總督에게 報告할것

第七條 辯護士會는 미리 每年 修習을 許할 辯護士試補의 數를 定하야 朝鮮總督의 認可를 受할것

第八條 辯護士會는 前條의 數를 超過하는 申込을 할者 其他特別한 事由가잇는境遇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受하야 修習의 申込을 拒絶함을得함

第九條 辯護士試補의 修習은 辯護士會가 修習의 申込을 受諾한日부터 이를 開始함

第十條 其指導辯護士 又는 指導委員은 修習期間中 其指導辯護士試補와 가티 實習時에 出廷하야 訴訟手續을 見習하는外 民事及刑事에 關한 書類의 起案其他辯護士가 取扱할 實務를 修習할것

第十一條 辯護士試補는 修習日誌를 作成하야 이를 辯護士會에 提出할것

第十二條 指導辯護士는 辯護士試補의 修習의 成績其他 參考가될 事項을 考査表에 記載하야 이를 辯護士會에 提出할것

第十三條 辯護士會는 辯護士試補의 修習을 了한때에는 遲滯업시 前條의 考査表를 朝鮮總督에게 提出할것

第十四條 辯護士試補가 疾病其他正當한 事由에 因하야 修習을 缺한日數는 六十日까지는 이를 修習日數에 算入함 辯護士試補修習을 中止할境遇에잇서 二年以內에 다시 修習을 開始한때에는 前修習期間을 이를 通算함

第十五條 辯護士試補에 對하야는 辯護士會의 規則中 辯護士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十六條 辯護士會는 辯護士試補의 品行其他修習上 必要한 事項에 不適當하다고 認하는때에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受하야 其修習을 停止함을得함 前項에 依하야 修習을 停止된者는 [illegible]年을 經過치안흐면 다시 修習의 申込을 함을不得함

附則

本令은 昭和十一年六月一日부터 이를 施行함

▲朝鮮辯護士試補考試規則

第一條 辯護士試補의 考試는 京城에서 이를 行함

第二條 考試는 辯護士試補의 學識의 程度 其他必要한事項에 對하야 이를 行하고 또 修習의 實績을 考査함

第三條 考試委員은 判事 檢事 朝鮮總督府事務官 辯護士 其他學識經驗잇는者中에서 朝鮮總督이 이를 命함

第四條 考試委員은 委員長 常任委員及臨時委員으로써 이를 組織함

第五條 委員長은 朝鮮總督府法務局長으로써 이를 充함

第六條 常任委員은 三人으로하고 辯護士中에서 朝鮮總督이 이를 命함

第七條 臨時委員은 二人으로하고 朝鮮總督府判事 檢事 又는 朝鮮總督府事務官及辯護士中에서 朝鮮總督이 이를 命함

第八條 委員長은 委員을 統轄하야 考試에 關한 一切의 事務를 掌理함 委員長이 事故가잇는때는 其指名한 委員이 其職務를 代理함

第九條 常任委員은 辯護士試補의 考試에 關한 事務를 分掌하고 臨時委員은 考試에 關한 事務를 掌함

第十條 考試委員은 考試에 關한 事務의 處理에 當하야 [illegible] 朝鮮總督에게 報告할것

第十一條 考試를 受하려는者는 [illegible] 其方法에 依함

第十二條 辯護士試補가 考試를 受하려하는때에는 辯護士會를 經由하야 [illegible] 朝鮮總督에게 出願할것

附則

本令은 昭和十一年六月一日부터 이를 施行함

保留鑛區를 漸次로開放

相當한波紋捲起?

總督府의 保留鑛區及 先願鑛區는 最近 數年來 漸漸開放하여 오는데 黃州(黃州鑛山) 新興(新興鑛山) 三陟(新興鑛業) 等의 鑛區는 [illegible] 民有로 移讓하야 開發의 進行되고잇는데 남어잇는 比較的 有望한 鑛區는 平南成川의 金鑛、明川、吉州、鏡城의 各鑛區(?)에 對하야 有望鑛區인만이다 이미 先願權者의 業者가 喪失하얏스며 咸北道로부터도 保留開放의 申請이잇슴으로 總督府當局에서는 近近實地調査를 行한後에 適當한事業者에 開放할意向이라한다 그러데 이것은 從來의 保留鑛區와가티 現實的으로 大利權은 되지못하는것이라하나 保留鑛區의 開放은 毎나 相當한 波紋이 일어나리라고 豫想된다

全北의 萩細工 組合組織助長

果實籠으로 外國方面의 輸出品으로 好適한 全北의 萩細工籠은 大阪方面에 見本品을 보내어본바 자못 有望하다는것이 判明되엇슴으로 道副業奬勵의 見地에서도 이것을 副業獎勵하기로되엇는데 머욱 製品의 改良向上을 圖謀하기爲하야 完州郡高山面을 中心으로 萩細工組合을 組織하고 資金融通 技術指導、製品의 改良統一을 圖謀하기로 되엇다한다

새책
重複買冊말고 一冊一冊으로 簡單明瞭하게
圖 一般肥料講座한 書籍이 發刊되엇사오니 發行所及書名 價格等을 下敎하여주시요 (一讀者)
答 京城黃金町 朝鮮農會發行 尾崎史郎著「肥料の常識」一圓 東京府神田區錦町 弘明堂發賣 小松澤德三郎著「堆肥と綠肥」一圓

產業

世界的進出로 苹果栽培熱熾烈

今年도十五萬株의增加를豫想 輸出도增加될貌樣

朝鮮特産의 苹果는 十年度의栽培樹數二百二十萬八千株 收穫高一千六百五萬四百貫 又는 前年에比하면 栽培樹數 十二萬一千 收穫高六十二萬貫의 各激增을示하엿는바 繼續하야 今年도 栽培樹數는 十四五萬株의 增加가 豫想되어 이미 近東歐洲는 勿論 世界各地에까지 進出하는苹果는 今年 다시 一割가량의增加가 豫想되어 이進出力은 强化되리라고 본다 果樹栽培로 注目할 傾向은 從前 果樹라하면 果樹園經營을 하고잇섯는데 近年에이르러 副業的으로 休閑地利用이만허 苹果는 咸南、咸北에서 이 傾向을 濃厚히하고 잇슴은 期待되고잇다。

물결치는 보리

慶南叺筵品質低下 道當局、業者에警告

農家副業으로 首位를占하는 慶南道의 叺及筵의增産은 逐年激增相을示하고잇는터인데 今年度의 叺及筵은 一般的으로 品質이 低下하야 叺用叺은 市場出廻品에 [illegible] 一部地方의 生産品의品質이不良하야 實用에不適當한터이며 市場의 聲價를 失墜시키고價格을低落시킬 狀態에잇슴에 鑑하야 道當局에서는 이의品質向上改善을 圖謀하기爲하야 如左히 通牒한바잇섯다

一、經繩을强固히할것 妄白米를包裝하고 日本內地市場에 出廻하는것으로서 經繩切에依한 亂俵가만흠

二、藥打를充分히할것

三、織込를充分히할것

四、其他注意事項

가、一及三의事項으로서는 不充分함으로 重量을 가볍게自然 亂俵를 生키쉬움으로써不評이다 그리고 重量을 增加시키기爲하야 原料藁에 水分을包含케하는等 事는 가장忌避할것이나 筵에잇서서도 前項의 理由에依하야 品質이 一定에 達치못한것이 만흐니 이의注意를要함

關稅引上으로 明礬石開發機運

알미늄工業隆盛豫想

알미늄及알미늄合金의 關稅는 이번의 關稅定率法改正에依하야 四割乃至 三十割의 引上을 보게되어 알미늄工業은 俄然 活況을 呈하리라고 豫想되는바 日本內地에서는 알미늄原料인明礬石의 産出이 皆無임으로 從來 有望視되면서도 採算點에不安이잇서서 本格的開發을 보지못하고잇는 全南의 玉埋山、珍島의 明礬石鑛山은 一齊히 本格的開發에 着手하야 鑛業朝鮮에 一異彩를 투두게되리라고 注目된다

忠南道의春蠶 郡別掃立狀況

忠南道의 春蠶掃立狀況을보면 掃立時期는 五月十日부터 同二十日까지인데 蠶種掃立枚數는 合計四萬二百五十九枚이며 桑樹繁茂狀況은 良好함으로 蠶兒發育狀況도 極히 良好하다는바 更히 府郡別의 蠶種掃立枚數를 보면 다음과가튼데 昨年同期에比하면 三千八百五十二枚의 增加를보이고잇다

▲大田府二百枚▲大德二千四百五十二枚▲燕岐二千一百四十九枚▲公州四千六百八十一枚▲論山三千百一枚▲扶餘一千九百八枚▲舒川八百二十五枚▲保寧一千八百五十九枚▲青陽二千五百二十五枚▲洪城三千五百四十四枚▲禮山三千六百十二枚▲瑞山六千六百枚▲唐津二千七百六枚▲牙山二千八百四十五枚▲天安二千四百五十二枚

鰮漁期가遲延 減漁는未免形勢

粕製造量도減少豫想

今年度의 鰮漁는 目下 慶南北 江原三道의 南朝鮮刺網漁場에서 夏漁를 하고잇는데 寒流關係로 今年은 季節이 約一個月늣저今後 七月中旬까지 順調로 鰮漁가 繼續되다하더라도 減量은 未免할 模樣으로 이結果 刺網漁船이 多少 增加하야 減量을 多少카ㅣ바하야도 三割程度의 減漁는 未免할터임으로 今年의 夏漁에 依한 鰮粕製造量은 三十萬俵以下로 昨年보다 十萬俵餘가 減少하리라고 본다

▲開城人蔘公定價格(五月二十五日調定)

等級	十五	二十	三十	四十	五十	六十	七十	八十	百	小片	無片	大尾	大中尾	中尾	皮尾	細尾
天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地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良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切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等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要=昭和九年産은 本價格表보다各等各片을 通하야每斤五十錢低廉

自動車法

朝鮮도適用

國産自動車製造業法은 今議會에 通過되야 朝鮮에도 勅令으로 公布實施하기로 決定되얏는데 現在朝鮮에는 自動車關係工場으로서는 組立及車體製造工場은 十一을 算하나部分品製造그 直接製造工場이업슴으로同法의施行을 보아도 直接 關聯은 업는듯하고 于先 法令의 實施는 主로 朝鮮經由의 部分品과 車體輸入에 關하야 適用될 豫定

軍手副業은 果然有利할가

【朝鮮副業協會調査】

京城에서 軍手의 製産은이제로부터 十五年前에 民間工場과 刑務所에서 行하여왓는데 此等은 主業的이고 其他 家內副業的으로도 個人에 依하야 計劃되어왓스나 永續되지못하고 失敗한 例가만타。

最近 京城에도 軍手副業을 奬勵한다고하야 製造機械를 販賣하는 取扱店이 二三個所되야 此等取扱店의 宣傳이 地方農民에게 普及되엇짜닭인지 각금 이에 對한 質問이 各方面에서 頻繁히 잇는現狀이다。

이에對하야 朝鮮副業協會에서 京城府內의 軍手工業狀態를 調査한것을보면 다음과갓다

最近 軍手의 需要는 자못廣大하야 將來往도 洋洋하다고보겟다 滿洲、朝鮮은 勿論 北中南洋、其他의 外國에 軍手가進出되고 잇스며 今後 各種工業의 發達에 伴하야 더욱 그需要가만허 질것이 事實이어서그와가리 販路가만흔 軍手가 工場組織에 依한 動力機械의 大設備를하는 工場生産과 家內工業的 小規模의 副業生産과의競爭이 되겟느냐 안되겟느냐하는데 對하야는 他機會에 말하기로하고 今日에잇서 軍手가 한 家內副業으로 存立하야 잇는것은 틀림업는 事實이다 即 經濟的으로 多少의 利益을 어드면서 經營되고 잇슴은 事實이다 그러나 軍手副業의 機械를 販賣하기爲하야 각금 宣傳하는 一部의 機械販賣商人이 말하는것과가티 利益이잇는가하는 것은 자못疑問되는일이다 그러고 여긔에 말하는데對하야 此等機械販賣業者의 反感을 사는일이 잇슬는지모르나 그것은朝鮮의 副業發達上 不得已한일이다 그런데 左記하는事實은 實際副業으로現在從事하는者와 十數年前부터工場組織에 依하야 生産하는者에 對하야 調査한것이며 此等營業者의 實際談도 드러잇는것이다

◇

一、軍手機械를 販賣하는 業者의 宣傳하는 中에서 生産從事者에게 重要한 關係가잇는 事項을 摘記하야보면

一、取扱機械가優秀하다고하는것

一、工賃이 一打에對하야 三十錢이된다는것

一、製品은 機械販賣店에서 直接引受한다는것

一、一日의 能率 十打以上이라는 것

腎先販賣하는 機械가 優秀하다는것은 무엇을標準한것이지 모르겟스나 現在工場組織으로 生産하는工場에서 設備한 機械와 比較하야보면 工場設備의것은一山付의것으로 一臺 四、五十圓 二山付의것으로 一臺 六十圓부터百圓의 二種類가잇는데 價格에잇서 그것은二倍乃至三倍에相當한 機械(大槪百六十圓부터二百圓가량으로 販賣하는모양이다)의能率은 工場設備의싼 機械보다 훨신 良好하다 다음 工賃이 一打에對하야 三十錢으로 거의永久的인것가티 말하는모양이나 그것은 決코 永續되는것이아님이 明瞭하다 家內副業이라도 生産品의 供給過剩을 招來하면 必然的으로 工賃이 減少될것은 明白하다 그리고 一打에對하야 三十錢의 工賃이 確實히 現在에잇서 되느냐고하면 그러치못하다 實際從事하고잇는者에게 對하야보면 一打에對하야 最高로 二十四、五錢 거긔에서 諸費用六、七錢을떼면十七、八錢의 工賃밧게안된다 그것도熟練하기까지는 三四個月의 時日을 要하는터이다

機械를 販賣하는 取扱店이生産品을 引受한다고해서 果然生産者에게 有利하겟느냐 안하겟느냐는 考慮할일이다 引受하여주기는하겟지만 生産者에게不利하게 取引한다면 아무것도아니다 아직까지도 現在 京城在住의 生産者에게는 比較的조켓스나 地方在住의 生産者는運賃其他雜費用을 生産者가 負擔하게되므로 當然 不利하게되다

一日의 能率 十打以上이라고하야도 果然 十打가되지못하고 一日 十打乃至 六打가平均이라고 보게안된다。

以上과가티보면 軍手는 不利한 副業은 아니나 決코 有利하다고 보기도쉬우나 決코 有利한 副業은 아니다 처음從事하려면 販賣、工賃에 損失을보지안흘줄밋는다

◇

一、紡績은 自己가購入할때 그것은 每日新聞紙上에 發表되는 市勢를보면된다 新聞市勢보다 小取引은 一梱 五圓가량 비싸다고생각하면 큰差가업다 絲는 十番手西藏、鹿印、鐘紡等이조타

二、機械는 二山付의 七、八十圓程度의것 多數일때는 一山付 五、六臺에 對하야 二山付一臺의程度 二山付는 手指 手首를함께 編織할수잇다

三、販賣는 自己가 할 雜貨店、工場等에特約하야만할것이며 옥조라하지안코는안된다

四、小規模經營은 原料綿絲를小買하는 關係上 原料費에서不利함으로 共同購入에 依하야經營이 有利할것이다 一丸외市勢와 二〇丸一梱의 市勢와는 價格에 잇서 大差가잇다

五、機械의使用法은三週間가량이면充分한데 熟練工이될려면三個月 以上을 要한다 熟練工의 一日(十時間)能率은 六、七打(二〇〇匁것)工賃은 普通 二〇〇匁의것 一打式十五錢乃至 二十錢(諸費用一打에 五錢乃至 七錢을 差引)一人一日約四打의能率

六、軍手의 種類는 一打 一六〇匁、一八〇匁、二〇〇匁、二四〇匁等인데 第一需要가 만흔것은二〇〇匁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軍手一打의 무게가二〇〇匁되는것이다

七、綿絲의 知識、新聞에나는市勢는 一梱의 大量取引市勢 一梱의 重量은 正味四八貫、一梱은四十九包即一丸은一貫二〇〇匁、即 綿絲一丸(一貫二〇〇匁)을부터 一打 二〇〇匁의 軍手는 六打를만든다 그러나 만든다면 軍手는 綿屑이나므로 五匁가량減少된데 十匁가되면 未熟練者이다 이러므로 第一梱 百八十圓의 綿絲로서 軍手를만들면 大體다음과가다

180圓+40=4圓50錢→丸價 4貫+40=1,200匁→6打 1,200匁+200匁=6打 450錢+6打=75錢 75錢+25錢=100錢工賃 25錢의利益

八、現在一打의市勢(五月中旬)

	同區都賣市勢	鷄都賣市勢
一〇〇匁의것	[illegible]	[illegible]
一五〇匁의것	[illegible]	[illegible]
二〇〇匁의것	[illegible]	[illegible]
二五〇匁의것	[illegible]	[illegible]

九、軍手의需要는 十月부터 翌年三月까지가만코 其他는 比較的閑散 그때문에 府內工場의 工賃은 十月부터 三月까지 一打에 三〇錢 其他月은 二五錢가량이다 그리고 이閑散期는 徑木輔 洋襪等의 附設事業을하고잇다 府內의 工場中 一은 四〇臺 一은 二〇臺 一은 一五臺가량 設備하야잇고 其他 만흔것은 刑務所工場이다

最近 南朝鮮方面에서 鐵工과이 大工場組織으로 軍手生産을 計劃하고잇는데 그것은 特殊한 軍手임으로 家內工業을 壓迫하지안는다고 聲明하고잇다고 한다。

特產市勢

▲江華 (廿五日)

◇人絹	一匹	二十六碼
天印		五、六〇
地印		五、二〇
◇江華人絹	一匹	二十七碼
天印		四、四〇
地印		四、二〇
人印		三、八〇
◇𦁏地	一枚幅三尺長四尺五寸	
天印		〇、七〇
地印		〇、六〇
◇苧麻布	一匹	二十六碼
天印	百番手	六、二〇
地印	同	六、〇〇
人印	同	五、五〇
天印	八十番手	五、四〇
地印	同	五、二〇
人印	同	五、〇〇
天印	六十番手	四、八〇
地印	同	四、六〇
人印	同	四、四〇
◇花紋席	一枚幅三尺長六尺	
天印		三、九〇
地印		三、六〇
人印		三、三〇
◇叺	一枚	
肥料用		〇、一七

日用商品市況

京城 (五月二十六日)

◇菜蔬類

品名	單位	價格
고구마	一貫	[illegible]
로란	一貫	[illegible]
馬鈴薯白	一貫	[illegible]
人蔘	一貫	[illegible]
蓮根	同	[illegible]
生薑大	同	[illegible]
同小	同	[illegible]
수박	同	[illegible]
胡瓜	百個	[illegible]
茄子	同	[illegible]
일년감	一貫	[illegible]
시금치	同	[illegible]
쑥갓	同	[illegible]
南瓜	本箱	[illegible]
玉葱	十貫	[illegible]
靑葱	一貫	[illegible]
미나리	一把	[illegible]
마늘	百個	[illegible]
松茸	一貫	[illegible]

◇果實類

品名	單位	價格
苹果 國光	四貫	[illegible]
同 紅玉	同	[illegible]
同 [illegible]	同	[illegible]
同 早生赤	[illegible]	[illegible]
同 今村秋	[illegible]	[illegible]
同 晩三吉	同	[illegible]
夏蜜柑	同	[illegible]
바나나	一貫	[illegible]
栗	一斗	[illegible]
잣	一石	[illegible]
실백	一斗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銀杏	百斤	[illegible]
고추	百斤	[illegible]
고추가루	同	[illegible]
실고추	同	[illegible]
大棗	百斤	[illegible]
乾柿	一斗	[illegible]
生落花生	百斤	[illegible]

◇家畜飼料

品名	單位	價格
鷄飼乾粕	十貫	[illegible]
成鷄用飼料	五斗	[illegible]
育雛用	同	[illegible]
鷄由用粉	二叺斗	[illegible]
麩	百斤	[illegible]
玉蜀黍粉	[illegible]	[illegible]
同 中割	同	[illegible]
同 粉	同	[illegible]
高粱粉	同	[illegible]
同 粉	同	[illegible]
魚粉メ粕	十貫	[illegible]
糠	八五斤	[illegible]
穀殼	百二十斤	[illegible]

◇毛皮類

品名	單位	價格
앙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封度	[illegible]
同 三吋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梳毛	同	[illegible]
同 毛三	同	[illegible]

◇養鷄用鐵網

品名	單位	價格
四尺幅 二寸目	百斤	[illegible]
同 一寸半目	同	[illegible]
同 一寸目	同	[illegible]
三尺幅 二寸目	同	[illegible]
同 一寸半目	同	[illegible]
同 一寸目	同	[illegible]
同 五分目	同	[illegible]

◇川魚類

品名	單位	價格
잉어	一貫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미꾸리	同	[illegible]
뱀장아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자라	同	[illegible]
蜆貝	一升	[illegibl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鷄卵	百個	[illegible]
同	一貫	[illegible]
生鷄	一貫	[illegible]
生豚	同	[illegible]
生兎	同	[illegible]

◇其他副業品

品名	單位	價格
四季鷄卵	百個	[illegible]
鶉卵	同	[illegible]
蜂蜜	一罐	[illegible]
參標廣田	一反	[illegible]
經木廣田	同	[illegible]
杞柳	一貫	[illegible]
藁草	同	[illegible]
漆	同	[illegible]
椎茸	同	[illegible]
胡麻油	一罐	[illegible]

【朝鮮副業協會調査】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九四六	金銀鑛	全南靈岩郡金井面	四月卅日	井邑郡新泰仁面 代表者 姜玉成 同井州邑 姜殷甲 同德川面 千河秀
一二九四七	同	京畿江華郡佛恩面 吉祥面良道面	同	京城府冷泉町 代表者 金奎源 同 太平通 李泰枝 姜三敎
一二九四八	同	忠南大德郡鎭岑面	同	大德郡鎭岑面 呂運約
一二九四九	同	同公州郡反浦面鷄龍面	同	大田府大東町 金容璇
一二九五〇	同	忠北淸州郡江西面 江內面	同	天安郡笠場面 代表者 趙在淳 同 姜德成
一二九五一	砂金·金鑛	平南寧遠郡小白面	五月一日	京城府明治町 代表者 小林鑛業株式會社 同 平松吉太郞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一八三四		江原通川郡碧養面	四月二十四日	順川郡新倉面 李相燮
一〇四八九		忠北淸州郡北一面 四州面	同二十五日	京城府南米倉町 代表者 西川吉兵衛 同舟橋町 金順文
九四六六		同永同郡上村面	同	永同郡上村面 松本近彥
一二九〇三		全南光山郡河南面	同	金堤郡聖德面 洪應杓
六一五一		咸北明川郡上雩北面	同	城津郡城津邑 姬野長太郞

黃昏

韓雪野 作 安夕影 畫 【96】

기로(岐路)(三)

시 려운 고개를 숙이고 말업시 걸어나오다가, 회사정문에다 다다라서 무의식하게 뒤를 돌아다보앗다。순간, (회사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씨연한생각과 동시에, 무언지모를 서운한생각이 뒤섞기 와다。

그리며 도한참 걸어오는사이에 그는,

(회사를 그만두면 어디로 갈가?)

하는 생각을 하엿다。

그다음순간 그는 얼른 고향을 생각하엿다。그생각은 뜻하지안코 상시에 오랫이엇스나, 그것은 그어느생각보다도 이순간에 잇서서는 가날피게 그가슴에 매여달여 떠러지지 안헛다。

마치 이때까지의 지나온일이 물우에뜬 거품가티 바람에 불여가고, 그올미를 흐르는 줄기찬흐름의소리가 들여오는것가티 고향의 정조(情調)가 소리노피 귀미테 살아오는것 이엇다。다시 말하면 그것은 표면의 어지러움이 싸라진으로 해서, 밋바다의맑음이 뚝뚝히 살아오는 것가튼 그러한것이엇고, 뢰곰세상을 이저버림으로해서 만에선경이 차자오는것가튼 그러한것이엇다。

그날밤 그는 오래간만에 준식을 차자갓다。

아모러나 회사를 그만두지안흐면안될 경우에 이르고보매, 한동안 깜바 이저버렷든 고향이 새삼스레 생각에떠오르고, 동시에 고향을 가티 떠나온 오직 하나인 애동무 준식이가또한 애틋이 그의맘을 붓들엇든 것이다。

그는 준식을 차자가는 동안 여러가지생각을 하엿다。

가령고향으로 간다고하더라도 경재와의관계를 끈어버리거되리라고는 생각지안햇다。

차라리 깁히 파고들어가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생각은 경재와의 관계를 좀더 안정한 가운데 살려보라는 잠재의식(潛在意識)에서 울어나온것이엇다。

경재는 일쪽 농촌으로 가자고 말한일이 잇고 농사꾼의 순박함을 부러워한일이 잇고하라서 자기도 농사짓는이들과가티 흙과 풀과 나무와 좀 가운데에 무쳐서 살고십다고 말한일이 잇다。

그러타고해서 반드시 자기가 압서서 경재를 농촌으로끄러가고 십지는안햇스나 그러나경재가 자기를 따라오는 경우에는 결고 그를 악의하고 하지안헛고 악으라고하지 안헛슬뿐아니라 속으로는 경재가떠라와주기를 은근히바라는맘이 잇섯다。

그는 오늘밤 준식을 차자가서 경재와 자기와의관계를 어느정도까지 그에게 고해하고 경재와가티 고향으로라도 돌아가보고 십다는 자기의 의사를 실토하라고 하엿다。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때에 경재가 역시 자기와 거취를 가티할는지는 아직 의문이나 그것이 의문일수록 자기가 자기의뜻을 실행해보는것은 경재가 거기 공명하는가 안하는가를 시험해보는 조흔 게기(契機)가 되리라고 그는 생각하엿다。

경재가 일쪽 농촌으로 가자고 해노코 이런경우에 이르러서 자기와 뜻을가티하여주지안는다면 그것은 즉 자기에게 대한 리해와사랑이 부족한때문일것이니, 과연 그러타면 그와의 압날에 노픈 리상과기대를 부치기도 어려운일 일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온바로는 경재는, 결코 못미들만한 사람은 아니엇고, 또 자긔의뜻을 전연 돌보아주지안흘만한 사람도 아니엇다。물론 자긔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때에는 그도 가티가라고 할것이요, 가서는 무슨일이든지, 가령 농사짓는일이라하더라도 해낼만한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하엿다。

이러케 생각하니 원한으로 떠나온 고향이나마 한업시 정답게 또는 아름답게 눈에 선히 떠와다。곰곰 생각해보면 비록 고향일지라도 자기를 반겨마저 한때기 땅과 한개의 이긴도 업는것이엇스나, 그러컨만 고향을 더할수업는 유혹을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질러버리게하엿다。

고향으로 가면 무슨 깁한 소식과 반가운일이 차자올것만 가태서다。무슨일이 더지 해서 살아갈수 잇겟지…하는 생각이 그어느 생각보다도, 그어떤 불안보다도 힘차게 머리를 처드는것이엇다。

—우리들 보다도 더 현경업고 더 무지한사람들도살아간다。아니 차라리 그런사람들은 항용 땅을 모르니만치 고통을 어느정으로 알지못한다。그것은 어느편으로 보면 밤이나낫이나 신경을 날카롭히 해가지고 잇는 도회人사람들보다 훨신 행복된자리에 서잇는것이다。

그리고보다 고향가티 그리운곳은 업섯다。